도움 기도, 못 배우면 못한다

(이사야 31:1~9)

1.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2.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도움 기도, 못 배우면 못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도움 기도, 못 배우면 못한다'
선교보고 중에 들었던 일화입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이 어느 날 주무시는데 커다란 비단뱀이 들어와서 온몸을 휘감았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서는 비단뱀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올 정도로 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비단뱀은 사람의 몸을 휘어 감고 조여서 질식시킨 다음에 힘이 빠진 사람을 통째로 삼킨답니다. 이 선교사님은 말로만 듣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비단뱀이 사정없이 선교사님을 감으며 조여오니 숨을 쉴 수 없는 위기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도움 기도입니다만 말 그대로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순간 온갖 공포와 절망감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이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포 속에서도 선교사님의 대응이 빛을 발했습니다. 웬만했으면 뱀을 뿌리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을 텐데 성경 말씀을 떠올리셨던 것입니다. 시편 23편과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30장 15절의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이라는 구절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가 물밀듯이 찾아오고 평정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듯이 자신의 생사를 주관하실 것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조여오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조여 오는 불안 속에서도 입술에는 기도

가 메아리치는 중에 질식되어 초죽음이 되었던 선교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집니다. 선교사님의 몸을 조이던 비단뱀이 조이던 것을 풀고는 조용히 숲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스스로 그 뱀을 풀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했다면 뱀은 더욱더 강하게 조였을 것이고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일화가 '도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잘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남 유다는 애굽에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앗수르의 남하가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공포와 염려에 가득차서 애굽과 함께 반 앗수르 동맹을 구축합니다. 이 이야기가 앞서 30장에서도 언급되며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졌습니다.
30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시 책망이 이어집니다.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였습니다.
'도움'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옵니다. 이사야는 이 도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적인 도움 기도, 성경적인 도움 기도에 들어있는 신비로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나 기도는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모든 기도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은 현재 삶에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극복입니다. 이것을 위해 절대자이자 초월자인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모든 종교든 무속이든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구조를 보여줍니다. 먼저 주목을 끄는 부분은 1절입니다.
'애굽에 도움을 구하였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일견 도움을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앙망하며 찾는 것을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이나 NIV 성경처럼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번역한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적 도움 기도의 기가 막힌 신비함을 뭉개버리는 번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내려간 것에 대한 도움은 히브리어로 '레즈라(lə·'ez·rāh, לְעֶזְרָה)'라는 단

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구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다라쉬(ḏā-rā-šū, דָּרַשׁוּ:)로서 '앙모하다, 찾는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는 바라봄과 찾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도움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부분에서 '앙모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솨아(šā-'ū, שָׁעוּ)로서 '바라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열납하지 않으셨다, 열납하셨다'라는 부분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보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열납하다'라는 말로 번역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앙모하다'라는 말로써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위를 집중해서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옥상에 올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자 마음에서 욕망이 끓어오르고 신하들에게 그 여인의 신변을 알아보게 합니다. 11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알아보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구하다, 찾는다.'라는 뜻의 다라쉬(ḏā-rā-šū, דָּרַשׁוּ:)입니다. 즉 내가 전혀 모르는 대상을 확실히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주된 이유는 단순히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풀어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 유다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입으로는 불렀으나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도움은 곧 내가 타인으로부터 느끼는 필요입니다.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타인에게 요청해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원적인 해결을 제시합니다. 내 마음이 도움을 얻고자 하여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문제의 해결이 아닌 마음에서 하나님

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을 심히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거나 율법이나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거역함의 결과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거역함은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마음에서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거역함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도움 기도의 방식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발생했다면 마음으로 돈 문제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밤이고 낮이고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돈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고막이 터져라 수 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르며 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중에도 마음은 결단코 돈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세상의 문제를 뚜렷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심히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셨으니 마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한 채 돈 문제만을 바라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적 도움 기도란 무엇일까요?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남 유다 백성들은 앗수르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꼈기에 앗수르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싸워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문제를 직면한 주체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내가 문제를 직면한 주체였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었으며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서 보게 되자 앗수르의 침공은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과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점이 바뀌고 나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애초에 앗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처지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을 때에는 목자 서넛이 달려들어서 막대기를 휘두른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한 번 포효하면 목자들도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이 남 유다를 움켜쥐실 작정이셨습니다. 앗수르가 쳐들어온다 하여도 힘없는 목자들처럼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남 유다는 다른 도움을 구하러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해결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 세상을 향해서 도움을 찾으러 다니거나, 문제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문제의 목줄을 꽉 쥐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문제로 여겼던 일들이 나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문제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밤새 기도하면서도 문제를 바라보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거역하는 것인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주일날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수원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두 분이 동해에 오셨다가 지나가는 길에 강릉에 들리면서 만나길 바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고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분은 미혼이시면서 특수학교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분께 남자동료가 있는데 애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료가 애인과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들으시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고, 주어진 사실들 중에서 하나님을 현실로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와계신다는 사실은 현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돈 없고 집 없고 차 없는 것이 애인과의 결혼에 문제가 됩니다. 부족한 상황만 마음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다만 마음에 이미 담은 돈 문제나 차 문제 집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기에, 하나님을 보기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책망한대로 이 청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두 가지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여자도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꾸려야 될 가정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집이나 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것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것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의 목줄을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

다. 큰 사자와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이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현실에서 배제하고 미뤄버렸습니다. 마음에서는 여전히 이 세상 문제를 바라보기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이 동료분에게 이 말을 했던 것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알아들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것이 현실이고, 집 없는 것이 현실이고, 결혼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일 뿐 하나님이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한 참된 도움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주체성을 꺼야 합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이 어디론가 가버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햇빛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를 명확하게 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전구의 불을 끄듯이 삶의 문제를 꺼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삶의 문제에 대한 주체성을 끄라고 선민들에게 번제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허락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상황을 유지하며 세상 문제만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러한 거역에서 모든 범죄가 발생합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상태를 꺼야하고 죽여야 합니다.
모든 행위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죄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환하게 보인다면 생각할 수조차 없고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문제를 환히 보는 나의 마음을 죽었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주체성이 꺼지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일인 줄로만 알았던 일들이 어느 것 하나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나면 마음의 소원이 바뀌어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이라면 애인과의 결혼이 더는 마음의 소원이 아니게 됩니다. 애인은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기쁨과 만족함을 표현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혼하게 될 것이고, 결혼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것입니다. 젊은 사자와 큰 사자가 먹이를 움켜쥔 것처럼 모든 문제를 당신의 것으로 움켜쥐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신비로움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던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

의 방편쯤으로 여기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나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비단뱀이 선교사님의 몸을 조여 오듯이 문제는 삶을 조여 올 것입니다.

남 유다는 앗수르의 위협만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환히 보일 때까지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 방법은 앗수르에 점령된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남 유다는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번제단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임을 알고, 이러한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젊은 사자와 큰 사자가 먹이를 움켜 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움켜쥐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문제인줄로 알았던 문제가 하나님의 과제인 것을 깨달을 것이고, 내 것은 하나님 자신 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난 기쁨과 평강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복음적 도움 기도인 이유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적 도움 기도인 이유는 성경에서 이 기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선풍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멋진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를지라도 얼마든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적, 복음적 도움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보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멋진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배운 대로 도움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지도록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